

국가안전대진단 임실군 앞장

24개 분야의 907개소 안전관리 실태점검 진행... 652개소 점검 마무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임실군이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임실군은 국가안전대진단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군민 중심의 안전한 임실군을 이끌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인 가운데 24개 분야의 907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점검실적을 보면 24개 분야 652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71%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안전대진단 기간 마감일인 내달 13일보다 훨씬 이전인 이달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중 대형공사장, 저수지, 전통신장, 급경사지, 가스시설, 문화재, 교량, 어린이보호구역, 요양병원, 체육시설, 입도시설 등 군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진행되고 있다.

또 일반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모두는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시설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임실군이 적극 앞장서고 있다.

건축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시설물·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율점검표에 따라 소방·전기·가스·시설분야로 점검 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심 민 군수를 비롯한 한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추진됐다.

군은 취약시설인 입석지구 급경사지 현장과 임실전통시장, 요양병원을 차례로 점검하면서 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을 두자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사업장과 학교, 가정에서도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통해 생활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각 시설의 보수·보강계획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나만 믿고 따라와’ 웹 예능 오픈

장류산업·문화·먹거리·관광의 꿀팁 등 진행

순창군이 웹 예능프로그램 ‘순창나만 믿고 따라와’를 오늘 12일 네이버 티비에 공개한다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웹 예능이란 웹과 예능의 합성어로 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순창군은 테마별 10분 분량 6편으로 총 60분으로 구성 했다. ‘순창나만 믿고 따라와’는 장류의 고장인 순창을 중심으로 장류산업·문화·먹거리·관광의 꿀팁을 알려주는 스토리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순창군이 제작지원하고 전라북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획했다.

출연진으로 예능계 웃음코드의 달인 박휘순, SNS 먹방 스타인 양

수빈, 신선 발달한 트로트 퀸 정해진, 마지막으로 매력만점 기상캐스터 오수진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웹 예능 ‘순창나만 믿고 따라와’ 내용은 출연진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강천산 설경을 배경으로 순창 관련된 퀴즈대결, 고추장 명인과 함께 하는 고추장 담그기 요리대결, 고추장으로 만든 음식 소개, 발효소스토글에서 즐길 수 있는 발효커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게임 등을 담고 있다.

시청자들이 등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순창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첫 방송은 3월 12일 11시부터 매일 1편씩 네이버 TV캐스트 웹 예능 전용관의 ‘순창나만 믿고 따라와’ 공식 채널에서 공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기가정 주거지원 협약 체결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소동하)는 7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와 ‘내 마음속 사랑 집 2호점이 나타났다’ 협약을 통해 주거신축비 5,000만원, 전기후원금 2억, 결연지원 2,400만원, 의료지원 최고 3,000만원, 주거비 500만원, 엘로카펫 1,000만원 등 지원금 전달식을 하고 ‘내 마음속 사랑 나눔 2차 캠페인’을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지원받은 주거신축비, 전기후원금, 결연·의료비 등 총 3억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순창 농촌문제 해결형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산업 고용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창출하고 구직자들의 직업능력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최근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젊은 층 유입에 포커스를 맞춘 ‘순창 농촌 문제 해결형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국비 6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65세이상 노인·저소득층 등

순창군이 전북도 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 중 만 65세 이상 군민들에게는 약품비 10만원의 50%인 5만원을 지원하고 만60세 이상 저소득층과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약품비 10만원의 80%인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외 50세 이상 주민들은 약품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별도의 접종비용은 받지 않는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일반 병원에서 약 17만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0세 이상저 소득층과 1~3급 장애인은 2만원, 65

세 이상 노인은 5만원, 50세 이상 군민들은 10만원의 자부담 비용만으로 접종 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최근 5일부터 보건의료원 및 각 면 보건지소에서 희망자 2,350명에 대해 접종을 시작했으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엔 접수하지 못한 군민들에 대해 보건의료원 혹은 보건지소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5월중 백신수입 등을 통해 추가 접종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포진’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신경대를 따라서 신체에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를 만드는 데서 유래 했다.

사람 몸의 등뼈 부근에 있는 신경절에 잠복상태로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대상포진은 평생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대상포진 없는 건강한 순창군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문의는 보건의료원 전화 650-5262, 5243 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남원소방서, 출산산모 119 안심콜센터 운영

남원 지역 내 출산징후를 보이는 응급 산모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119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7일 ‘출산산모 119 안심콜센터’를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출산산모 119 안심콜센터’ 사업은, 농촌지역 취약시간대에 출산징후를 보이는 임신부가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부르면 응급상황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갖춰진 이송차량이 출동하고, 의료기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모 119 안심콜센터’ 운영으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산모에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구축으로 관내 출산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신 희망자는 한방 난임 치료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전 산모검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라면 임신부 앰블럼과 주차증 발급, 임신제?월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는 물론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하여는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첫째부터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첫째아 200, 둘째아 500, 셋째아이상 1,000만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본인부담금 90% 환급 등 각종 지원사업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순창군은 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순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및 순창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2018년 농촌지도 시범 및 지원사업 심의의 선정을 위해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인단체, 선도 농업인 등 14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회에서는 소득작물분야 ICT기술 접목 삼채소 수경 재배시범, 기능성 특수미 재배시범, 플립코트 재배시범 등 20개 사업, 체험 및 치유농업 분야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등 4개사업으로 총 27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확정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